

研究論文

『주역』의 사유원리와 윤리사상

홍순목*

I. 서론	V. 제가치국의 증정
II. 『주역』의 사유원리	VI. 결론
III. 『주역』 윤리사상의 특징	<참고문헌>
IV. 수신의 자율과 타율	<국문요약>

I. 서론

역의 도는 광대하여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천문, 지리, 악률, 병법, 음운, 산술 등과 그 밖의 것들을 두루 포함한 용광로의 불이기에 모든 학설들은 주역을 원용하여 설파되어 진다.¹⁾

『주역』은 선진 고대사회의 사유형태의 대부분을 담고 있는 저서이기 때문에 상기에서처럼 ‘용광로의 불’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과하지 않다고 본다. 『주역』²⁾은 「易經」과 「易傳」으로 나눌 수 있는 바, 本經이라고도 하는 「易經」은 서주 초·중기에

* 서울대학교 강사, 중국철학 전공(fishmoonhong@hanmail.net).

1) 『四庫全書總目提要』, “易道廣大, 無所不包, 旁及天文, 地理, 樂律, 兵法, 韻學, 算術, 以逮方外之爐火, 皆可援易以爲說”

2) 전래의 전적상에서는 伏羲가 팔괘를, 文王이 괘사를, 周公이 효사를, 孔子가 『역전』을 찬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周易·繫辭傳下』 2장,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附則觀法於地,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漢·班固, 『漢書·藝文志』, “易道深矣, 人更三聖, 世歷三古”; 『淮南子·要略訓』, “八卦可以識吉凶, 伏羲爲之六十四變”

당시의 사회상황과 철학적 요소³⁾들을 반영한 占筮書로 창조되었고, 서주 말기와 춘추에 이르는 시기에 ‘天理 등의 관념이 『易經』에 들어오게 되어 哲理의 색채를 지니게 되었으며, 전국 후기에 음양이라는 범주를 『易經』에 끌어들여 해석하고 논술하는 『易傳』이 출현하면서 『周易』은 占筮書인 동시에 天理意義를 지니게 되어 先秦典籍들 속에서의 위상이 제고되는 한편, 중국 사상계에 『周易』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⁴⁾

『易經』의 내용은 天:乾(☰), 地:坤(☷), 水:坎(☵), 火:離(☲), 山:艮(☶), 風:巽(☴), 澤:兌(☱), 雷:震(☳) 등으로 표시되는 팔괘의 조합에 따른 六十四卦의 卦符와 乾(☰)을 필두로 既濟(☵☲)와 未濟(☲☵)를 끝으로 하는 卦符의 명칭⁵⁾과 卦의 의미와 의의를 밝힌 卦辭 그리고 각 卦를 이루고 있는 여섯 개의 爻에 대한 의미와 의의를 설명하는 爻辭로 구성되어있다. 卦사는 六十四 개이지만 爻辭는 각 卦가 여섯 개의 음(--) 또는 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기에, 三百八十六 개의 효사에 乾坤 양괘의 用爻를 더하여 총 三百八十八 개다. 爻辭는 爻의 의미와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卦사의 내용과 유사하다.

卦사와 효사간의 관계에 대하여 전통적으로는 긴밀한 논리적 관계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卦象과 爻辭에 대한 주석서들과 그에 따른 사상들이 나오게 되었지만, 최근 들어 爻辭 등의 중복문제 등을 들어, 卦사나 효사가 단지 占筮 時에 있어서의 우연한 결과에 대한 기록이라 卦사와 효사 간에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⁶⁾ 卦사와 효사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논리성은 장시간의 정리와 수정 등을 걸쳐 부여된 것으로, 卦사와 효사간의 어떤 것은 그 필연성과 상관성이 강조되었고 어떤 것은 상대성이 약화되어진 것으로 본다. 卦사와

3) 64卦의 卦辭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렵, 장사, 혼인, 다툼, 전쟁, 음식, 제사, 자식의 양육, 질병, 목축 등에 관한 것으로 다음같이 대략적으로 분류되어진다. 첫째, 자연현상과 그 변화, 둘째, 역사인물과 그 관련사건, 셋째, 행위에 따른 이해득실, 넷째, 길흉판단. 爻辭의 내용 역시 卦사와 유사하다.

4) 金珍根, 「새로운 周易觀 定立을 위한 研究 전통 주역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易經』·『易傳』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주역학회(편), 『周易의 現代的 照明』(범양사, 1992), 68쪽.

5) 卦의 명칭은 사물의 형상을 관찰하여 그 형상의 이름을 따거나(取象), 卦象이 나타내는 사물의 의미를 취한 경우(取義)와 卦효사의 언어 중에서 따온 것(筮辭) 및 점을 친 결과(占事) 등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6) 李鏡池, 『周易探源』(北京: 中華書局, 1982), 59~60쪽 참조.

효사간에 있어서의 논리성을 부정한다면, 논리성이 있음을 전제로 주석되어온 역대 전적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주역과 관련해서 연구할 때, 연구의 객관화를 위하여 패사와 효사간에 논리성이 반드시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또한 패사와 효사간에 논리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易經』의 패효의 卦符는 장기간의 卜筮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數와 象이 整齊化되고 추상화되어 규범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패효간의 다양한 대립과 조합을 통하여 논리적 사유성을 지닌 것이다. 「역경」에 나타나는 패효사의 내용은 은상시대의 원시종교의 형태와 윤리관념 및 자연인식 등의 제 방면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으며, 殷商에 나타난 以德配天이라는 天命과 卜筮가 상호 결합하여 천인합일이라는 整體論的(holistic)인 이론 체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易傳』은 象傳 상·하, 象傳 상·하, 文言, 繫辭 상·하, 說卦 序卦 雜卦 등 7종 10편으로 구성되기에 十翼⁸⁾이라고도 불리운다. 일반적으로 「易傳」을 공자가 찬술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전하여져 왔지만, 송의 歐陽修가 『易傳』 중의 계사전, 문어전, 설괘전, 잡괘전 등이 공자의 작품일 리가 없다고 논평한 이후로 역전의 작가와 그 찬술시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다. 오늘날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역전은 전국시기에 荀子の 門徒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완성된 것이라는 것이 정평이다.⁹⁾

「象傳」은 「易經」의 패상을 설명한 ‘大象’과 爻象을 설명한 ‘小象’으로 나누어진 다. 大象의 六爻는 三爻卦(八卦의 三爻)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爻辭는 八卦가 상징하고 있는 하늘 땅 바람, 물, 불등의 자연물을 비유하여 효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文言傳」은 乾卦와 坤卦에 대하여 공자와 문답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며, 天地의 德, 군신간의 예의, 나가고 물리감의 방법,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繫辭傳」은 『易傳』의 사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풍부한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역전의 원리에 대한 通論이라 할 수 있다. 「說卦傳」은 八卦의 성질, 방위등과 팔괘가 상징하는 것의 의미를 비롯해서 重卦¹⁰⁾의 유래를

7) 劉長林, 『中國系統思維』(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57~73쪽, 李廉, 『周易的思維與羅輯』(中國: 安徽人民出版社, 1994), 66~68쪽 참조

8) 十翼의 翼은 ‘날개’라는 의미의명사인 동시에 ‘돕다’라는 뜻의 동사로 十翼의 의의가 일차적으로 본경인 『易經』을 해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날개와 같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9) 金珍根, 앞의 논문, 55~69쪽 참조

설명한다. 「序卦傳」은 『易經』의 六十四卦의 순서에 대한 언급과 육십사괘의 성립 원인등을 때로는 卦象에 의하여, 때로는 卦義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雜卦傳」은 六十四卦중에서 서로 반대되거나 또는 서로 같은 두 괘씩을 섞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序卦傳」같이 六十四卦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언급이 「雜卦傳」에 있기는 하지만, 한편의 책으로 엮기에는 그 내용이 적기에 잡록의 하나로 첨부된 듯한 인상을 준다.

『易傳』은 『易經』의 取象과 取義의 방식에 따르는 한편, 다양한 爻位에 따라 卦 爻辭의 길흉을 판단하여 『周易』의 내용에 논리성을 부여하고 체계화 하고, 『易經』과 같은 표현형식으로 天道, 地道, 人道가 자연과 사회의 보편적인 법칙에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사상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易傳』은 陰陽을 가지고 卦·爻辭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一陰一陽之謂道」라는 명제 하에 천지만물은 때로는 상호의존에 의하여, 때로는 상호배척 등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모든 사물의 복잡성과 변동성 모두는 음양의 대립과 통일 등의 待對의 법칙에 따른다고 본다. 이러한 待對에 의한 음양의 상호작용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천이 된다.

『易經』은 그 구성체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연물을 상징하는 과장된 팔괘의 작용과 인간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사물과의 관계에 인간의 행위를 가탁함과 아울러 자연의 변화와 인간행위에 따른 발전을 순환론적으로 보는 경향을 띠고 있으나 「易傳」을 통하여 『周易』은 天地人을 아우르는 整體論的인 사유체계를 지니게 되었다. 『周易』은 하늘과 사람, 주체와 객체, 자연과 사회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삶과 자연 그리고 사회에 내재되어있는 규율을 발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周易』은 사람의 일과 자연 및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준거가 되어왔다.

天人合一이라는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周易』은 生生變化와 그 변화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 음양대대를 통일시키는 사상 등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周易』은 사물의 본질과 변화의 법칙 등의 근원으로서 聖學의 텍스트로서 존중되어 역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중시되어져왔다. 왕부지는 사서삼경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10) 重卦는 동일한 괘가 겹친 것을 말하는 것으로 乾(☰), 坤(☷), 坎(☵), 離(☲), 艮(☶), 巽(☴), 兌(☱), 震(☳) 등의 예이다

그 근원은 극히 정미하여 천지와 사람의 모든 것은 드러내어, 육경과 논어 맹자 등이 性과 하늘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만 역경처럼 깊고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였다. 진실된 性學의 조종으로서 聖學의 기능은 역경에서 드러날 뿐이다.¹¹⁾

성리학의 물꼬를 텃다고 할 수 있는 주돈이 역시 “위대하구나! 역경이여, 사물의 본질의 근원이여!”¹²⁾라고 말하는 『주역』은 천지자연의 운행과 그 운행에 따라 흐르는 시간의 변화, 그리고 그 시간의 변화 속에서 영위되는 모든 존재들의 생존 등 천지구조(공간), 자연운행(시간), 만물생성(生機) 등의 절대원리를 몇 가지 공식에 담아냈다. 그리고 그 공식을 기호를 통해 풀 수 있겠끔 하였으며(자연철학), 그를 통해 온축된 지식을 체계화하여 생존 법칙 즉 생존지혜(原理哲學)로 승화시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천지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정신을 갖추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문화철학)¹³⁾고 평가할 수 있다.

『周易』은 천도의 운행과 만물의 생성 및 사시의 추이와 변화 등의 차원에서 윤리덕목을 논증하고 있어 天道를 가지고 인간의 세상사를 설명하는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게 하였다. 그 중 『易傳』은 유가와 도가 등의 사상이 원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천인관계를 소통시켜, 天道의 陰陽이 곧 人道의 仁義이며 人道의 仁義가 곧 天道의 陰陽이라는 ‘性命之理’의 천인합일사상¹⁴⁾을 심화시켜, 인과 의리는 윤리상의 덕목을 우주론적인 본체론으로 심화시켰다. 따라서 仁義는 철학적인 범주를 넘어나가게 되었다.

『周易』은 가정윤리의 가치덕목들을 가치와 덕목자체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 아닌 우주자연의 질서를 포함한 整體論的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변화와 추세를 살펴 새로운 실천규범을 창출하고 있다

11) 清·王夫之, 『周易內傳』卷5, “根極精微, 發天人之蘊, 六經 `語` 孟示人知性知天, 未有如此之深切著明者, 誠性學之統宗, 聖功之要領, 於易而顯.”

12) 宋·周敦頤, 『通書』, “大哉易也, 性命之源乎!”

13) 金忠烈, 「損·益卦의 論理와 敎訓」, 『周易研究』, 제2집(한국주역학회, 1997), 20쪽

14) 천인합일사상은 우주를 하나의 자동조절기능을 가진 동태적 평형의 계통으로 파악하여 인간과 자연 및 사회를 하나의 동태적 유기체로 보는 사상. 서원화(著) 김제란 역, 「중국고대의 천인합일사상과 현대적 의미」, 한국동양철학회(유음), 『기술정보화시대의 인간문제』(현암사, 1994), 36쪽 참조

고 볼 수 있으므로 각계각층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도덕적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주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자연의 대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아를 새롭게 생성해가는 창조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周易』은 말하고 있다. 『周易』의 이러한 사상은 천인합일 및 내외의 합일을 통하여 주체가 자각하는 자율적인 도덕률과 객관적인 외부의 준칙인 타율적인 도덕규범을 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周易』의 사유원리를 살펴보고, 『易傳』을 통하여 『周易』은 天地人을 아우르는 象數義理를 바탕으로 한 整體論的인 사유체계를 비로소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본 글을 논술하는 데 있어서 『易傳』 즉 十翼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나타나는 윤리사상의 특성과 수신제가치국의 윤리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학적 엄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周易』과 諸經典들간의 문헌학적인 접근과 아울러 서지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은, 본 글의 목적이 주역의 윤리사상을 살펴 현대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부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에 同時的 차원이 아닌 通時的 차원에서 『周易』과 諸經典들이 지닌 윤리적인 내용들을 살폈다. 본 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있어서 인용된 四書三經등과 같은 經典들 속의 내용들이 문헌학적으로나 서지학적으로 『周易』 즉 『易經』과 『易傳』이후에 찬술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易傳』과 그것을 引伸한 후대의 철학이 여전히 동양 철학의 영역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정통이라고 할 수 있다¹⁵⁾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I. 『주역』의 사유원리

우리가 어떠한 사유원리로 사물을 보는가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한 윤리문제를 포함한 인간과 자연관계에 대한 결론도 달라진다. 우리는 하나의 사유원리를 통하여 사물의 원형에 대한 관점을 類比的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된

15) 金珍根, 앞의 논문, 72쪽

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떠한 사유원리 즉 기계적이거나 유기적인 사유원리를 지나느냐에 의해서 각자는 독특한 가치관등을 형성하게 된다. 『周易』에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유원리의 전제는 천인합일이라는 整體論的(holistic)인 사고이다. 정체론적 사고란 일반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우주안의 모든 것들이 상호연관 되어 있고 고립되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주역』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전일적인 것으로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물도 상호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生生활동의 과정 속에 있다고 본다. 자연은 변화하지만 그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양이 성장하여 극에 달하면 음이 자라고, 또 음이 극에 달하면 그 속에 양이 자라기 시작하는 ‘物理極而必反’의 원리에 따라 음양의 소실이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자연의 법칙은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에게 함께 적용된다¹⁶⁾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은 똑같은 生生의 연속 속에서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 역시 자연의 일부분에게 된다. 따라서 『주역』은 인간을 포함한 각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상호영향 즉 교감을 통하여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각 사물의 역할과 기능을 유비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象數義理의 관계¹⁷⁾를 통한 이러한 整體論的인 『주역』의 사유원리를 음양의 待對, 變化와 交感, 生生, 유비적인 觀象과 取諸身 및 取諸物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음양의 待對: 一陰一陽之謂道(일음일양을 일컬어 도라고 함)¹⁸⁾

“일음일양을 도라고 한다”는 말은 『주역』의 음양관을 설명한 것으로 『주역』 64괘의 구조와 성립에 있어 기본적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주역』에 있어서 ‘일음일

16) 張勝求, 『伊川『易傳』의 倫理思想』, 『周易研究』, 제5집(한국주역학회, 2000), 75쪽

17) 經驗的 象形化와 象徵化가 象이며, 形象과 象徵符號의 關係化 및 時空位置上의 배열 및 응용화와 실용화가 數로 易象이 數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드러내고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義이다. 易의 의미와 개념이 발휘되어 명제와 판단이 되고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理의 출현을 나타내며, 이것은 易象과 易數, 易義의 체계화요 사변화이기도 하다. 成中英은 象數義理의 시대적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象: 상형화와 상징부호화; 신석기와 玉器시대 數 관계화와 실용화 夏 義 명제화와 판단화; 西周, 理 체계화와 사변화 춘추 成中英 『易』에 있어서 象·數·義·理의 一體同源論, 『周易研究』, 제3집(한국주역학회, 1999), 90쪽.

18) 『周易·繫辭傳上』5장, “一陰一陽之謂道”

양은 음양의 대립과 통일의 관계를 실현시키고 있다 음양의 대립과 조화는 궤사와 효사의 서술에 있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음양의 조를 그리고 있다는 면에서도 음양의 대립과 통일이 구현되어지고 있다. --를 음효라 하고 -을 양효라 하여 64괘의 변화자체는 음효와 양효의 변화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주역』에 있어서 음양효의 변화는 음양의 두 氣의 변화가 우주의 기본법칙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추동하여 변화가 생긴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추동하는 가운데 변화가 있다,” “음과 양의 덕의 기운이 합하니 강유의 체가 있다”¹⁹⁾등에 있어서의 강유는 음양의 의미로 이들 모두 음양이 변화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다.

「易傳」이 「易經」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陰陽剛柔의 개념이 분명하게 제기되었다. 아울러 음양의 변역으로서 궤효사의 구조 및 그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陰陽變易의 법칙으로 사물변화의 과정과 법칙을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繫辭」에서 말하는 바, “一陰一陽을 일러 道라 한다,” “강유가 서로 미루어 변화를 生한다”라는 것이며, 設卦에서 말하는 바, “음양의 변화를 살펴 卦를 세우고 剛柔의 理致를 발휘하여 조를 생하다”라는 것이다.²⁰⁾

2. 變化와 交感: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역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계속됨)²¹⁾

음양의 待對와 그 변화를 핵심적인 원리로 하는 『周易』은 동양사상의 제 분야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추동하는 가운데에 변화가 있다,” “해와 달이 서로 추동하여 밝음이 생겨난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변화한다,” “한번 닫히고 열림을 변화라고 하고, 가고 오는 것이 다하지 않는 것을 통한다고 한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가고 물러남의 모습이다”²²⁾ 등의 언급은

19) 「繫辭傳上」2장, “剛柔相推 而生變化”; 「繫辭傳下」1장, “剛柔相推 變在其中矣”; 「繫辭傳下」6장,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20) 朱伯崑, 「周易의 特質과 그 現代的 價値」, 『周易研究』, 제3집(한국주역학회 1999), 25쪽

21) 「繫辭傳下」2장,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孔穎達은 易을 변화의 총칭이라고 보고 있음 孔穎達, 『周易正義』卷首 참조

22) 「繫辭傳下」1장, “剛柔相推, 變在其中矣”; 「繫辭傳下」5장, “日月相推, 而明生焉”; 「繫辭傳下」8장

『周易』이 이세상의 모든 사물은 부단히 변화하는 가운데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周易』은 ‘交感’을 변역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단에 말하기를, ‘泰는 음이 가고 양이 오는 것이니 길하고 형통하다’는 것은 곧 천지가 서로 교감하여 만물이 통한다는 말이다,” “천지가 감응하여 만물이 생긴다,” “천지가 교감하지 않으면 만물이 발육되지 않는다”²³⁾ 등의 예가 그 것이다. 感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 느껴서 한 마음이 된다는 뜻으로 咸을 感으로 풀이한 「咸卦·象」을 볼 때 感이란 感覺(sensation)의 의미가 아니라 감응이나 교감과 같은 의미이다.²⁴⁾

한대에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역학자들은 모두 「易傳」이 제시한 陰陽變易說 의거하여 『周易』의 기본원리를 해석하였다. 예컨대 한대 象數易學派의 대표적인 인물인 京房은 “陰陽二氣는 양은 음으로 들어가고 음은 양으로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상호교감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生生을 일러 易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陰은 비록 虛하나 陽位를 받아 들어 實하게 되나니, 陰陽은 승강을 반복하면서 능히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천변만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易이라고 칭한 것이다. 易은 바로 變化인 것이다”(『京氏易傳』)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陰陽二氣가 끊임없이 상호교감하는 것으로써 주역을 易이라 부르는 까닭을 해석한 것이다. 또한 義理易學派의 창시자인 王弼은 주역의 원리를 해석하여 이르기를 “天地의 一切變化를 포괄하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며, 낮과 밤의 도에 두루 통하면 서도 일정한 형체를 갖지 않으며, 一陰一陽을 무궁하게 지속하는 바, 천하의 지극한 변화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이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卦로써 時를 보존하고, 爻로써 變을 나타낸 것이다”(『略例·明爻通變』)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前三句는 「繫辭」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易의 道를 一陰一陽의 무궁한 變易으로 歸結한 것이다.²⁵⁾

“剛柔相易”; 「繫辭傳上」11장,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繫辭傳上」2장, “變化者, 進退之象也.”

23) 「泰卦·象」, “象曰, 泰小往大來吉亨, 則是天地交而萬物通也”; 「咸卦·象」, “象曰咸, 感也, 柔上而剛下, 二氣感應而相與, 止而說,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 「歸妹卦·象」, “天地不交而萬物不興.”

24) 宋寅昌, 「『周易』에 있어서 感通의 問題」, 『周易研究』, 제3집(한국주역학회 1999), 165 쪽

25) 朱伯崑, 앞의 논문, 25~26쪽.

3. 新生: 生生之謂易(늘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일러 역이라 함)²⁶⁾

『周易』은 음양의 상호간의 추동과 변화에 의하여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生(생긴다)’은 아무런 원인이나 소재가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음양의 교감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천지의 큰 덕은 생이다” “천지의 기운이 화합하여 만물이 생기고, 남녀의 정기가 교합하여 만물이 자라난다”²⁷⁾ 등의 의미는 천지음양의 교감을 통하여 만물이 생겨나고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주역』은 ‘生生’ 즉 항상 새로운 ‘日新又日新’의 新生을 강조한다

新生의 결과물이 生成되기 위해서는 天地人이라는 三才의 생성과정을 통하여 표상화 되어 질 수 밖에 없다. 즉 생성의 과정을 마디지어서 그 마디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생성의 원리가 표상되어지는 것이다. 생성의 과정은 크게 생과 性이라는 마디로 구분되어지지만 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천지의 합덕이 전제되어야 하며, 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長의 과정과 합덕의 과정 그리고 합덕의 결과 나타나는 二世의 생성을 거쳐야 비로소 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성을 마디지어서 그 마디가 갖는 의의를 육십사괘로 나타낸 것이 바로 『周易』이다.²⁸⁾

생성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六十四卦(卦爻辭 및 十翼)들을 보면 많은 부분 인간의 生長成에 비유되어 논하여지고 있다. 이는 생성의 원리의 擬人化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생성원리가 물리적 존재의 생성원리가 아닌 인격적 존재의 생성원리이기 때문이다. 생성원리를 생성으로 이미지화하여 象으로 나타낼 때 인격적 존재인 성인과 군자를 중심으로 천인, 신인, 천지의 합덕으로 표상화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바로 이점을 통하여 重卦가 六十四일 수밖에 없는 까닭을 찾을 수 있다. 六十四卦는 부모의 합덕, 二世의 잉태, 출산, 성장, 성가, 부부합덕, 이세의 출생, 성장, 성가의 과정을 통하여 생성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다.²⁹⁾

『周易』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천지를 物의 生育者로 규정하고 천지에 의해 생성된 物은 각 生命인 物과의 음양교감에 의하여 또 다른 생명인 物을 만들어 낸

26) 『繫辭傳上』5장.

27) 『繫辭傳下』1장, “天地之大德曰生”; 『繫辭傳下』5장,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28) 李鉉中, 『周易』六十四卦의 序卦原理에 關한 研究, 『周易研究』, 제2집(한국주역학회, 1997), 178 쪽

29) 위의 논문, 183쪽.

을 말하고 있다. 주역은 유기체로서의 우주가 생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더욱 발양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創生작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생성의 지속은 부단한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내일을 있게 한다.

4. 觀象과 取諸身 및 取諸物: 仰則觀象於天…遠取諸物(우리러서는 하늘의 상을 보고…멀리는 사물에서 취함)³¹⁾

『周易』이 소위 ‘신명한 덕’을 지닌 까닭은 觀象을 하기 때문이다. “군자가 거처할 때 그 상을 보고 그 말을 완미하며, 움직일 때에는 그 변화를 보아서 그 점을 완미한다,”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낳자 성인은 이것을 본받고, 하늘이 상을 드리워 길흉을 나타내자 성인은 이것을 본받는다”³²⁾ 등 『周易』에서의 언급은 모두 『주역』이 유물론적인 사유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周易』은 자연으로부터 하나의 보편적이 원리를 도출하는 방식에 따라 자연을 구성하고 표준화 한다. 이때의 일반화 내지 표준화는 자연의 표준화이며 그것을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象이다. 따라서 『주역』에서의 象이란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의 일반화에서 다시 이를 원리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³³⁾ 또한 天文을 바라보고 땅의 모양을 살펴 易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현상을 관조하는데서 易論의 사유체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³⁴⁾

『周易』은 觀象을 중시여기기 때문에 “대체로 상을 통하여 성인이 깊은 이치를 보고 이것을 형상에 담아 그 사물의 마땅한 것을 본뜬다. 이것을 상이라고 한다”³⁵⁾고 하고 있다. 『周易』이 천지를 본받아서 만물을 관찰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

30) 金亨起, 『『周易』의 共存倫理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2000), 26~27 쪽 참조

31) 『繫辭傳下』2장,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32) 『繫辭傳上』2장, “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繫辭傳上』11 장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33) 錢明坤, 「주자易學은 象數學인가?」, 『周易研究』, 제5집(한국주역학회, 2000), 20~21쪽.

34) 宋恒龍, 「易論의 思惟體系와 象의 세계」, 『周易研究』, 제2집 한국주역학회 1997), 4 쪽

35) 『繫辭傳上』12장, “夫象, 聖人有以見天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 謂之象”

에 “역은 천지처럼 법도를 지나기에 천지의 도를 모두 거느린다”³⁶⁾고 말한다.

우주의 변화와 인간존재의 의미를 가까이는 자신에게서, 멀리는 자신을 둘러싼 사물에서 찾고자 하는 『周易』觀象의 사유원리는 整體論的인 세계관에 있어서 존재 현실의 상황을 타개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III. 『주역』 윤리사상의 특징

1. 和順

『周易』의 윤리사상이 오경과 논어 맹자와 더불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道家의 천도와 음양사상을 흡수하여 ‘性命之理’이라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 성인이 역을 만드셨는데 역으로 성명의 이치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 부드러움과 강함이라 하였고, 사람의 도를 세워 말하기를 인과 의라고 하였다”³⁷⁾

인의는 유가윤리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덕목이지만, 유가 사상사에 있어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은 인의를 성명이론의 위치로까지 끌어 올리지는 못하였고 음양철학으로 논증하고 있을 뿐이다.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고 한다”는 생각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 중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노자와 장자는 음양의 사상과 인성의 본질과를 연관하지는 않았다.

「易傳」은 유가와 도가의 사상이 원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천인관계를 소통시켜, 天道의 陰陽이 곧 人道의 仁義이며 人道의 仁義가 곧 天道의 陰陽이라는 ‘性命之理’의 천인합일사상을 심화시킨 결과로 인과 의라는 윤리상의 덕목은 우주론적인 본체론적 범주에 들게 되었다.

후세의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본체론적인 性命의 차원에서 인의를 음양의 배합으로 말하며 윤리적인 의미와 범주를 다뤘

36) 『繫辭傳上』4장, “易與天地準 故能彌綸天地之道”

37) 『說卦傳』2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다. 揚雄은 仁은 柔, 義는 剛으로, 周敦頤는 仁은 陽, 義는 陰으로 보았고, 주자는 仁을 陽으로 파악하였다. 주자는 인이 만약 양이 아니고 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수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며, 의는 비록 강하지만 사물을 수렴하고, 인은 도리어 사물을 편안하게 한다고 보았다.³⁸⁾ 王夫之는 주자의 기계론적인 해석에 반대하여 음양은 다 같이 강건하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王夫之는 천하의 사물은 칼로 자른듯하게 뚜렷하게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음과 양은 서로 결합되어 생겨난 것으로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양이 없이는 음이 존재할 수 없고 음이 없이는 양 또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하늘에는 陰에 해당하는 부드러운 면이 있기에 만물을 기를 수 있고, 땅에는 양에 해당하는 강함이 있기에 사물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음과 양은 서로 待對적인 존재인 것이다. 仁과 義의 관계 역시 양의 강함과 음의 부드러움과의 관계처럼 상호 待對적인 관계이다.

“인이 사악함을 차단하는 것은 강한 것이나 음이고, 자애로움이 만물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부드러움이다. 양이나 의는 단호함을 지니고 있으나 안으로 단속하는 것은 음적인 것이기도 하고 강한 것이며 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나 부드러운 것이다”³⁹⁾라고 하여 음양, 강유, 인의 등을 비록 다른 것이지만 상호 결합된 대대의 개념으로 본다. 역지로 무리하게 하나로 만들지 않음으로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太和’로 太和란 상호 순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⁴⁰⁾

“천지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命’이며, 만물은 상호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性’이다. 이어 나가기에 착한 것이며,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기에 착한 것이다. 이루고 되게 하는 것은 ‘性’으로 상호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기에 이루고 되게 하는 것이다.”⁴¹⁾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性命’이며, ‘性命’이라는 것은 ‘道德’이다.”⁴²⁾

王夫之는 ‘性命’의 이치를 ‘和順’ 즉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38) 『朱子語類』 권77, 권 94, 참조.

39) 『周易外傳』 권7, “仁之嚴以閉邪者強也, 陰也. 慈以惠物者柔也, 陽也. 義之有斷而儉者陰也, 強也. 隨時而宣者陽也, 柔也.”

40) 『周易外傳』 권7, 참조.

41) 『周易外傳』 권5, “天地以和順而爲命, 萬物以和順而爲性. 繼之者善, 和順故善也. 成之者性, 和順斯成矣.”

42) 『周易外傳』 권6, “和順者, 性命也. 性命者, 道德也.”

보았다. 따라서 ‘和順은 곧 음이 양의 이치에 따라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인 동시에 양이 음의 이치에 따라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동시에 서로 상생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일종의 균형과 견제를 통한 일종의 대대관계를 형성하며 天人간의 整體論的인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和順은 부단한 상생의 내재적 동인으로 자연과 우주질서의 법칙인 동시에 인간 본질의 바탕이 되고 있음으로 윤리사상의 근간이 된다할 수 있다. 王夫之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性命의 법칙이 비단 天道の 법칙인 음양이나 地道의 법칙인 剛柔와 人道の 법칙인 仁義등의 법칙을 넘어서 그 법칙의 요체는 和順에 있음을 체득할 때 비로소 性命의 법칙이 담고 있는 사상과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천지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命’이며, 만물은 상호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性’이다(天地以和順而爲命, 萬物以和順而爲性)”라는 말은 천지만물의 음양변화는 서로 어긋나거나 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和順에 귀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성명의 근원이며 요체인 것을 의미한다.

“이어 나가는 것은 착한 것이며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기에 착한 것이다(繼之者善, 和順故善也)”라는 말은 하늘과 사람 즉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사람은 性命의 근원에서 연원하기에 仁義의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인의는 음양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인과 의를 지녔다고 해서 착하다고 할 수 없고, 인의를 통하여 천지만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和順의 경지에 도달하여야만 착하다고 할 수 있다. 和順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인 동시에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도덕에 바탕을 두며 이치는 의에 바탕을 둔다.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고 본성을 탐구하고 다함으로써 성명의 본원에 이르게 된다.”⁴³⁾ ‘窮理’(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은 사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치를 궁리하는 것이며, ‘盡性’(본성을 탐구하고 다함)은 개인 자신에게 내재된 것을 탐구하고 다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인의의 성품을 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窮理’와 ‘盡性’의 목표는 和順에 있음

43) 『說卦傳』1장,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

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추구하여야만 한다.

窮理와 盡性을 다하여 자신과 사물을 다 이루는 것이 ‘至命’으로 ‘至命은 ’性命의 본원으로 돌아감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심신을 和順의 경지에 도달케 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연과 사회, 사회와 인간관계에서도 화순의 경지에 도달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격이 이상적인 인격체로 비로소 至善이라 할 수 있다

仁의 실체는 부모를 섬김이 그것이고, 義의 실체는 兄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다.⁴⁴⁾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다. 친함을 친압하는 것을 큰 일로 여긴다. 의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현명함 사람을 존중함을 큰 일로 여긴다.⁴⁵⁾

인정이 두터우나 의리가 없는 것은 친하나 존중하지 않는 것이요, 의리가 두터우나 인정이 없는 것은 존중은 하나 친하지 않은 것이다.⁴⁶⁾

동양윤리사상사에 있어서 유가의 사상가들은 仁義에 대하여 수많은 의견을 토로하여왔다. 상기의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유가가 중요시 한 것은 인의에 대한 관념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仁과 義 양자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것이다. 인의 핵심은 사랑으로 차별애적인 親親으로 현실화되며,⁴⁷⁾ 의의 핵심적 요소는 옳고 마땅한 것 즉 당위적인 宜로, 비록 인과 의가 유가의 기본적 가치덕목이지만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현실생활 속에서 仁과 義가 양자를 조화롭게 실현시키기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인정은 많은 데 의리가 미약하고 어떤 이는 의리가 많은 데 인정이 많지 않음이 현실이다. 인과 의가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친하며 존경할 수가 있고(親而尊), 친하며 존경하지 않거나, 존경하나 친하지 않은(親而不尊이나 尊而不親) 편향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과 의에 대한 유가의 견해는 현실적인 생활 속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듯하다.

44) 『孟子·離婁上』, “仁之實, 事親是也, 義之實, 從兄是也”

45) 『中庸』, “仁者人也, 親親爲大, 義者宜也, 尊賢爲大”

46) 『禮記·表記』, “厚於仁者薄於義, 親而不尊, 厚於義者薄於仁, 尊而不親”

47) 유가경전상 仁에 대한 언급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親親也, 忠恕也, 孝悌也, 愛人也, 克己復禮也, 人也 등

“옛날 성인이 역을 만드셨는데 역으로 성명의 이치에 순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 부드러움과 강함이라 하였고, 사람의 도를 세워 말하기를 인과 의라고 하였다”⁴⁸⁾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유가가 음양이라는 본체론적인 이론의 틀 속에 人道의 인의를 승화시켜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주역에서 仁義는 상호 연관되어 결합된 덕목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늘과 사람의 性命의 근본은 같은 것으로 性命의 근본은 음과 양, 유와 강 인과 의로 이들 양자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하나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의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외재된 性命의 이치에 부합되어야만 하기에 주역의 윤리사상은 외재적인 것이고 타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仁義는 인간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다 발휘하여 본연의 사명을 다한다면(盡性以至於命), 주역의 윤리사상은 내재적인 것이고 자율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역』은 이러한 상호 모순적인 개념인 자율과 타율, 내재와 외재를 융합하여 독특한 하나의 사유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사람은 마땅히 하늘과 땅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주자연의 조화와 질서 등에 맞춰 인간자신의 규범에 맞는 행위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주역』은 또한 사람은 마땅히 自強不息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선한 본성을 실현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사물과 조화롭게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즉 和順의 경지에 다다름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和順은 각 개인이 사회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주역의 윤리사상의 특징인 동시에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당위적 실천으로서의 예

중용을 원칙으로 한 인과 예의 조화가 공자 나아가 유교윤리사상의 기본 특징으로,⁴⁹⁾ 주역의 사회윤리사상은 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있다. “위는 하늘이고

48) 『說卦傳』2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49) 郭廣銀, 『倫理學原理』(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5), 29 쪽

아래는 못이 履괘이다. 군자는 위와 아래를 구분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뜻을 정하게 한다.”⁵⁰⁾

履卦(☱☵)의 上乾下兌에 있어서 위의 乾은 하늘이고 아래는 兌는 못을 뜻한다. 易傳에서는 하늘이 위에 있고 못이 아래에 있는 履卦의 모습을 통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존비귀천의 등급과 질서를 상징하고 있다. 군자가 이러한 패상을 보았다면, 마땅히 상하의 역할과 직분을 분별하여 정당한 행위규범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履의 의미는 발로 밟는 즉 실천함을 말하는 것으로 실천이란 마땅히 예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당위의 실천이 곧 예라고 인식한다. “사물이 쌓여진 연후에 예가 있음으로 그것을 받아 지님으로써 밟게 되는 것이다. 밟는다는 것은 예이다”⁵¹⁾라고 한 序卦에 禮가 곧 履 즉 당위적인 실천임을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大壯卦(☱☳)의 上震下乾은 즉 위의 震은 번개이고 아래의 乾은 하늘을 뜻한다. 「象傳」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천둥번개가 하늘위에 있으니 크게 장하다. 군자가 예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위에서 울리니 그 소리와 위세가 심히 장대하기 때문에 大壯이다. 다른 한편 이 괘는 아래의 천한 것이 존귀한 것 위에 있으니 장하나 예에 어긋난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易傳」은 군자가 大壯의 괘를 보게 되면 마땅히 삼가하고 삼가하여 자신의 행위가 예의 규범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非禮弗履(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라”⁵²⁾는 공자의 克己復禮사상과 「易傳」상에 나타나는 非禮弗履의 원칙은 그 궤를 같이 한다. 「易傳」은 천지만물의 생성과 인류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통하여 예의 기원과 존재론적인 의미를 논증하며 공자의 극기복례의 사상을 음양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승화시켜 나갔다.

천지가 있는 연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연후에 남녀가 있으며, 남녀가 있는 연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연후에 부자가 있으며, 부자가 있는 연

50) 「履卦·象傳」, “上天下澤, 履 君子以辨上下, 定民志”

51) 「序卦傳」, “物畜然後有禮, 故受之以履 履者 禮也”

52) 『論語·顏淵』,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후에 군신이 있으며, 군신이 있는 연후에 위와 아래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연 후에 예의의 잘잘못이 있다.⁵³⁾
 천지의 기운이 왕성하여, 만물이 조화를 변함없이 이루고, 남녀의 정이 얽혀 만물이 생겨나다.⁵⁴⁾

「易傳」에 있어서 천지는 만물의 근본이고,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다. 하늘과 땅 즉 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은 양이며 땅은 음이고, 하늘은 위에 있으며 땅은 아래에 있어 비록 존귀와 비천이 나뉘어져 있지만 하늘과 땅, 음과 양, 존귀함과 비천함은 상호교감을 하며 조화를 이루어 만물이 비로소 만들어진다. 우주의 자연 질서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서로 같지 않은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세분해서 말하면 음과 양의 분화와 결합에 의한 것이다. 음양 중 어느 한 요소가 결여되어진다면 우주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인 인륜은 없어지게 된다.

‘天地’와 ‘男女’가 상징하는 것은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의 分化를 말하는 것이며, ‘氤氲’과 ‘構精’이란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의 결합을 의미한다. 음과 양이라는 待對的인 사물의 결합으로 자연계는 항구적인 질서법칙을 들어나게 되고 끝임이 없는 운동과 변화를 하게 된다. 인류사회의 질서는 천지의 법칙을 본받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천지처럼 음과 양이라는 상호 대대적인 두 요소의 운동과 법칙을 따르게 된다. 남편은 양이고 아내는 음으로 이는 음과 양의 분화된 상태를 말하며, 부부가 결합함으로써 자식을 출산하게 됨은 음과 양의 결합을 통하여서다. 부부가 인륜의 시작인 것은 부부가 있는 연후에 자식이 있어 부자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부자관계가 있는 연후에 군신관계가 있게 되며, 군신관계가 있는 연후에 상하관계가 성립되듯이 인류사회의 모든 인관관계는 모두 부부관계에서 비롯되어 파생되고 변화된다.

사회구성원간의 모든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일종의 윤리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우주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인간자신의 존재론적인 바탕으로 삼아 인류가 만들어 낸 것이

53) 「序卦傳」,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

54) 「繫辭傳下」5장, “天地氤氲,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지만 천지의 원리를 본받아서 만든 것으로 주역은 음양의 분할된 각자의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음양의 조화와 결합을 중시하고 있다. 인류사회에 있어서 음양의 분할된 각자의 역할만 있고 음양의 조화와 결합이 없다면 주역상의 泰卦(☰☷)의 정반대인 “천지가 서로 交化하지 못해서 만물이 통하지 않고 위와 아래가 서로 交化하지 않는다”⁵⁵⁾ 否卦(☷☰)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고 분화된 채 각자의 역할과 주장만을 한다면 사회는 총체적으로 상호유대관계를 잃게 되고 서로의 관계는 무너져 결국 사회는 해체되고 만다. 이와 반대로 음양이 결합되어 구분이 없다면 상하관계가 없게 되고 귀천이 없게 되지만 결국 사회는 두 상반된 음과 양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 즉 활기를 잃게 되어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IV. 수신의 자율과 타율

무릇 ‘易’이란 성인이 덕을 숭상하고 공업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지혜는 높고 예의는 낮다. 높은 것은 하늘을 본받고 낮은 것은 땅을 본받는 것이다. 천지가 위치를 베풀어 ‘易’이 그 가운데에 행하여진다 성품을 이루고 보존할 것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도의의 문인 것이다.⁵⁶⁾

『周易』의 도덕수양상의 특징은 본체론적인 차원의 超越과 內在라는 일반적인 개념과 비교될 수 있는 ‘自律’과 ‘他律’이 혼합된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높은 것은 하늘을 본받음(崇效天)’과 ‘낮은 것은 땅을 본받음(卑法地)’은 他律이고, ‘성품을 이루고 보존하는 것이 道義의 門(成性存存, 道義之門)’이 자율로 주역은 자율과 타율이 혼합되어 하나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틀은 天地人이라는 三才가 혼용되는 이론적 틀의 바탕이 된다.

인간성품에 대하여 성선설과 성악설 등을 피력하여 서로 상반된 논리를 전개하

55) 「否卦」, “...則是天地不交而萬物不通也 上下不交而天下無邦也..:”

56) 「繫辭傳上」7장, “夫易, 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 知崇禮卑, 崇效天卑法地 天地設位, 而易行乎其中矣. 成性存存, 道義之門”

는 맹자와 순자는 도덕수양상 즉 수신상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맹자는 도덕수양상에 있어서 자율을 주장하고 타율을 반대하는 데 반하여, 순자는 타율을 주장하고 자율을 반대하였다. 이는 인성을 보는 견해에서 연유한다

맹자는 인간의 성품은 선한 것으로, 도덕관념은 완전히 천부적인 것이기에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생래적인 것으로 보아 도덕수양은 외부적인 것을 통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여겼다. 內省의 공부를 확충함을 통해서 본성을 알게 되고 천도를 알 수 있다고 여긴 반면, 순자는 “무릇 예의라는 것은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예의는 사람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⁵⁷⁾라고 하며 인간의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후천적인 학습과 외재적인 예의 등을 통해서만 인간의 성품을 개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이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준칙은 필요 없을 것이다. 도덕은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적 행위와 일치할 때 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도덕은 본질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일치를 지향한다. 도덕으로 개인의 내적인 도덕적 심리상태를 해석하는 것이나, 도덕을 외부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맹자와 순자의 도덕수양에 대한 견해는 각기 일리를 지니고 있지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맹자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내적인 자각을 확충하고 체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내적인 存養상의 공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예의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순자는 도덕수양에 있어서 맹자와 반대로 객관적 규범의 준거를 통해서만 예의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일리가 있지만, 예의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인간자신의 행위에 대한 외부의 강제적 규정을 사람이 어떻게 감내할 수 있는 것인지, 예의의 규범이 인간의 본성을 도리어 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순자 자신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주역』은 음양의 법칙이 天地人의 事象을 관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천도의 음양과 地道의 剛柔는 객관적이고 인간의 밖에 존재한 자연물인데 반하여, 人道의

57) 『荀子·性惡』, “凡禮義者, 是生于聖人之僞, 非故生于人之性也”

仁義는 외재하는 자연율이 인간의 내면에 품수된 것으로 인성의 본질이 된다. “이 어 나가는 것은 착한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은 성품이다(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라 하여 『주역』은 사람의 착한 성품을 靜的인 것이 아니라 ‘이어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동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이어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 繼之, 成之’의 대상은 陰陽의 道인 天道 즉 자연율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율을 이어 나가는 것은 선하고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외재한 자연율인 천도를 자발적으로 이어 나가, 자기주관적인 내재의 선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루어 나가는 것이 性이라면 이루지 못하거나, 안하는 것은 性을 인간의 본질로 응축시켜내지 못한 것임으로 사람은 주동적으로 도덕수양을 하여야만 한다.

『주역』의 이러한 사상은 천인합일 및 내외의 합일을 통하여 주체가 자각하는 자율적인 도덕률과 객관적인 외부의 준칙인 타율적인 도덕규범을 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역』의 도덕적 수양론은 맹자와 순자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도덕수양의 타율적 차원에 대한 「易傳」의 언급을 살펴보면, 도덕수양은 천지자연을 배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외재하는 윤리규범을 행위의 준칙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후천적이 학습이 도덕수양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혜는 높고 예의는 낮다. 높은 것은 하늘을 본받는 것이고 낮은 것은 땅을 본받는 것이다”⁵⁹⁾라는 것은 智와 禮라는 덕목은 모두 천지를 본받아서 나온 것이다.

하늘의 운행은 건실하다.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스스로 굳세고, 잠시도 쉬지

58) 「역전」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지만, 학자들의 공통적인 점은 「역전」이 춘추전국시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한시기에 「역」을 전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郭沫若, 「周易時代의 社會生活」, 『中國古代社會研究』(北京: 人民出版社, 1954), 68-94쪽; 錢玄同, 「讀『漢石經周易』殘字而論及今文易의 篇數問題」 古史辨 3 冊上, 74-83쪽; 李鏡池, 『周易探源』(北京, 中華書局, 1982), 301쪽 등 참조). 광말약은 「역전」의 대부분이 진대의 순자의 문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역』 十翼의 내용은 『荀子』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역은 춘추, 진한시기를 걸치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학계의 통설로 볼 때, 역전의 내용이 완전히 『荀子』와 같다고 볼 수 없지만 본 글에서의 『주역』이 순자와 맹자의 도덕적 수양론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헌학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주역이 맹자와 순자의 일부 내용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성론에 있어서 상이한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59) 「繫辭傳上」7장, “…知崇禮卑, 崇效天 卑法地…”

않는다.⁶⁰⁾

땅의 형세는 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물건을 싣는다.⁶¹⁾

건괘와 곤괘상전의 위의 말은 군자의 자강불식이라는 진취적인 정신은 하늘을 본받은 것이고 후덕재물의 관용의 정신은 땅을 본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천둥이 하늘위에 있는 것이 大壯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⁶²⁾

바람과 천둥이 썩이다. 군자는 이것으로 착한 일을 보면 즉시 옮겨서 행하고, 허물이 있으면 즉시 고친다.⁶³⁾

大壯卦(☰☳)와 益卦(☱☳)象傳의 말은 객관적인 외부의 규범으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이 산속에 있는 것이 대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먼저 한 말과 지난 행동을 많이 알아서 그 덕을 기른다.⁶⁴⁾

땅속에서 나무가 나는 것이 升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덕에 순종하고,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만든다.⁶⁵⁾

大畜卦(☰☷)와 升卦(☱☵)상전의 말은 도덕의 수양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하여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易傳상의 내용들은 순자의 주장과 아주 유사하다.

주역은 타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내재된 도덕률 즉 자율에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어 맹자의 주장과도 역시 유사하다.

밝은 빛이 땅위로 나오는 것이 晉이다. 군자는 이를 보고 스스로 밝은 덕을 밝

60) 「乾卦·象傳」,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61) 「坤卦·象傳」,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

62) 「大壯卦·象傳」, “雷在天上, 大壯, 君子以非禮弗履”

63) 「益卦·象傳」, “風雷, 益, 君子以見善則遷有過則改”

64) 「大畜卦·象傳」, “天在山中, 大畜, 君子以多識前言往行, 以畜其德”

65) 「升卦·象傳」, “地中生木, 升, 君子以順德, 積小以高大”

힌다.⁶⁶⁾

거듭 천둥이 치는 것이 진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자신의 일을 반성한다.⁶⁷⁾

산위에 물이 있는 것이蹇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을 반성해서 덕을 닦는다.⁶⁸⁾

산 아래 못이 있는 것이損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분함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는다.⁶⁹⁾

불이 하늘위에 있는 것이大有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악한 것을 막고 착한 것을 찬양해서 하늘의 큰 명령에 순종한다.⁷⁰⁾

晉卦(䷢), 震卦(䷲), 蹇卦(䷦), 損卦(䷨), 大有卦(䷍)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역』은 도덕수양에 있어서 인간의 자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晉卦의 ‘明德’은 인간이 천지음양의 도를 본받아 지닌 고유한 내면의 덕이고 震卦의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잃을 수도 있음과 인격을 원만하게 완성하지 못함에 대한 것이며, 蹇卦의 반성하고 덕을 닦는다는 것은 심신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덕성을 더욱 함양하는 것을 일컬음이며, 損卦의 분함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는다는 것은 분함을 억제하여 충동적으로 악을 저지름을 방지하고자 함이고, 大有卦의 악한 것을 막고 착한 것을 선양한다는 것은 도덕수양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주역의 사상은 또한 맹자의 ‘擴充善端’과 ‘求放心’ 등과 아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說卦傳」의 “이치를 다하고 성품을 극진히 하여 천명을 이룬다”⁷¹⁾는 말 중 이치를 다한다는 ‘窮理’는 타율에 대한 것으로 理는 객관적인 것이고 외재된 것으로 만물의 근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理를 지니고 있음으로 理를 궁구하여야만 한다. 이 理는 외재적인 理인 동시에 사람의 自性으로 사물에 있는 것이 내안에도 있는 天人合一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외적인 窮理와 향내적인 盡性은 같은

66) 「晉卦·象傳」, “明出地上, 晉 君子以自昭明德”

67) 「震卦·象傳」, “洊雷, 震 君子以恐懼脩省”

68) 「蹇卦·象傳」, “山上有水, 蹇 君子以反身脩德”

69) 「損卦·象傳」, “山下有澤, 損 君子以懲忿窒欲”

70) 「大有卦·象傳」, “火在天上, 大有 君子以遏惡揚善 順天休命”

71) 「說卦傳」1장, “窮理盡性, 以至於命.”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다 한다(盡)’는 것은 자강불식 하며 자신에게 품수된 自性의 德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盡性의 주체자는 성의 담지자로서의 주체이며, 자신의 본성과 타인의 본성 그리고 사사물물의 본성까지 실현시켜주는 주체이다.⁷²⁾

窮理와 盡性이라는 두 차원의 공부를 통하여 内外陰陽의 道인 天道에 부합하여야만 命이라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지니고 있는 본체인 도덕수행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향외적인 窮理와 향내적인 盡性을 통하여 궁극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역』윤리사상의 특징이며 사유원리이다.

V. 제가치국의 중정

1. 가정윤리

인륜의 출발점인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관계를 정하는 윤리규범은 음양의 분화와 결합의 원칙을 따르고 각종 윤리규범의 근본이 된다. 주역의 家人卦(☱☵)는 집중적으로 가정윤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가인괘의 내괘는 離卦(☲)인 불이고, 외괘는 巽卦(☴)인 바람이다. 바람이 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風化 즉 교화의 근본이 가정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象에 말하기를 가인은 六二의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로 잡고, 九五의 남자는 밖에서 자리를 바로 잡는다. 남녀가 모두 바른 것은 천지의 큰 의리이다. 가인에는 엄한 주인이 있으니 그것은 부모를 말함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형은 형으로서, 아우는 아우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각자 자리를 바로 잡아야 가도가 바로 된다. 집을 바로 해야만 천하가 바로 된다…⁷³⁾

72) 宋寅昌, 『『周易』에 있어서의 ‘盡性’의 問題, 『周易研究』, 제5집(한국주역학회, 2000), 337쪽.

73) 『家人卦』, “…象曰: 家人,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家人有嚴君焉, 父母之謂也. 父父, 子子, 兄兄, 弟弟, 夫夫, 婦婦, 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음과 양의 결합을 의미한다.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음양의 분할인 남녀의 역할이 실질상 중요하다. 음양의 분할과 결합은 일종의 정반합의 관계처럼 서로 상반되고 상생하는 관계로 불가분의 관계인 待對의 관계이다.

咸卦(☱☵)의 외괘인 巽(☴)은 少女를 뜻하며, 내괘인 艮(☶)은 少男을 의미한다. 함괘에서는 소남과 소녀가 상호간의 감응에 의하여 부부로 맺어지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象에 이르기를, 咸은 感이다. 柔는 올라가고 剛은 내려간다. 두 기운이 감응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艮은 그치고 兌는 기뻐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내려간다. 그러하기 때문에 형통하고 곧아야 이로우며 여자를 얻는 것이 길하다는 것이다. 천지가 감응해서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민심에 감응토록하기에 천지가 화평하다. 그 감응하는 바를 보아서 천지만물의 정황을 살필 수 있다…:74)

咸卦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역경은 음양의 교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존여비의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를 전도하고 있다. 부드러움이 강함의 위에 있고, 남자가 여자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쉽게 여자의 환심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쉽게 여자의 환심을 살 수 없는 것이다.

남성인 남편은 강하며 동적이기 때문에 집밖의 일을 주로 처리한다. 따라서 ‘남자는 밖에서 자리를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성인 부인은 부드럽고 정적이기 때문에 집안의 일을 주로 처리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인 부모의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상호 조화를 이루어 강유가 공존해야만 한다. 가정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상호모순의 통일체이기에 상하존비의 장유유서를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상하의 구분이 없다면 가장의 권위가 없으므로 가정을 통솔할 수 없게 된다. 가정을 다루는 데 엄함에

74) 「咸卦」, “…象曰: 咸, 感也. 柔上而剛下, 二氣感應以相與, 止而悅, 南下女, 是以亨, 利貞, 取女吉也.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 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可見矣…”

의한 존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를 구분 짓는 음양의 분할의 원칙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가정안에서의 정서상의 단합을 위하여 상호간의 즐거움을 공유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음양통합의 원칙이 중시되어질 수밖에 없다. 집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마땅히 관용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관대함과 엄함이나 사랑과 존경은 얼마간 상호 모순된 개념이기에 왕필은 “모든 사물이 몹시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면 은혜로움이 적게 됨이 걱정이고, 사랑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위엄이 없게 됨이 걱정이다”⁷⁵⁾라고 家人卦를 주석하고 있다.

주역에서는 관대함과 엄함 등의 상호 모순된 것을 통일시켜 과불급이 없도록 하고 있다. 순리적인 가정의 화목은 부모, 남녀공동의 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성에 의한 자애와 관용은 부성의 엄격하고 지나친 권위를 순화하고 조절함으로써 ‘寡恩’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반대로 부성의 권위는 모성의 자애와 관용을 억제하여 ‘寡威’하지 않도록 한다. 관용과 권위, 애정과 경외의 결합은 비단 가정윤리에 있어 실천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등에 있어서도 실천적 윤리의 근간이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형은 형으로서, 아우는 아우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각자 자리를 바로 잡아야 가도가 바로 된다. 집을 바로 해야만 천하가 바로 된다…⁷⁶⁾

유가사상은 『大學』에서 논파하듯이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가정윤리가 곧 사회윤리와 정치윤리의 기반인 논리는 『周易』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주역은 天道를 근거로 추론하여 人事를 밝히려 하였다. 유가가 주장하고 있는 인문적 가치와 이상 등을 자연주의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우주본체론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주역은 사람들에게 整體論的인 하나의 변증법적인 시각을 갖게 하였다.

75) 王弼注, 『周易』, 「家人」, “…凡物以猛爲本者, 則患在寡恩; 以愛爲本者, 則患在寡威…”

76) 「家人卦」, “…父父, 子子, 兄兄, 弟弟, 夫夫, 婦婦 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

사람이 윤리규범을 현실로 실행에 옮길 때, 음양의 분화와 결합이라는 서로 다른 양방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비로소 ‘天地之大義’에 부합되게 된다. 때문에 윤리적 덕목이 고식화된 교조주의적인 덕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 규범에 따르는 동시에 시류의 변화 등 각종 역사문화적인 구체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

‘父慈,’ ‘子孝,’ ‘兄友,’ ‘弟恭,’ ‘夫義,’ ‘婦隨’ 등의 가치덕목은 유가사상이 주장하고 있는 가정 윤리적 덕목들로 이러한 가치덕목들은 주역의 가치덕목들과 부합되지만은 『주역』은 가정윤리의 가치덕목들을 가치와 덕목자체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 아닌 우주자연의 질서를 포함한 整體論的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변화와 추세를 살펴 총체적으로 새로운 실천규범을 창출하고 있다.

가인이 준엄하다. 지나친 것을 뉘우치면 길할 것이다. 부녀자처럼 즐거워하면 마침내는 부끄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상에 이르기를 ‘가인이 준엄하다’는 것은 아직 잃지 않음이고, ‘부녀자처럼 즐거워한다’는 것은 집안의 절도를 잃음이다.⁷⁷⁾

가정을 바르게 하는 도는 지나치게 엄하면 화가되며 반면, 지나치게 즐거우면 그에 탐닉하게 된다. 준엄한 것은 엄함이 지나친 것이다. 즐거워 웃는 것은 즐거움이 지나친 것이다. 엄함이 지나친 것은 비록 해가 되는 것이지만 끝내 길한 것이기에 성인은 엄하게 하는 것을 권하여 잃음이 없도록 한다. 즐거움이 지나친 것은 비록 즐거운 것이더라도 끝내는 부끄러운 일이 생겨나기에 성인은 이를 경계하여 가절을 잃지 않도록 한다. 九三은 강하고 중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엄한 것이다. 집안을 바르게 하는 도는 성인이 취하는 도리이다.⁷⁸⁾

혹 묻기를, 정이천은 그의 「易傳」에서 말하기를, ‘집안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윤상과 도리를 바르게 하고 은애하는 것과 의리를 돈독히 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시다. 이제 윤상과 도리를 바르게 하고자 하면 은애와 의리를 잃게 되고, 은애와 의리를 돈독하게 하고자 하면 윤상과 도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윤상과 도리를 바르게 함에 있어

77) 「家人·九三」, “家人嗃嗃 悔厲吉 婦女嘻嘻 終吝 象曰 家人嗃嗃 未失也 婦女嘻嘻 失家節也”

78) 宋 楊萬里, 『誠齋易傳』 참조. “正家之道, 嚴勝則厲, 和勝則溺. 嗃嗃而嚴, 嚴勝也. 嘻嘻而笑, 和勝也. 然嚴勝者, 雖悔厲而終吉, 故聖人勸之以未失. 和勝者, 雖悅憚而終吝, 故聖人戒之以失節. 九三剛而過中, 嚴勝者也. 正家之道 聖人取焉”

서도 은애와 의리를 돈독히 하여야 하며, 은애와 의리를 돈독히 하면서도 윤상과 도리를 잃지 안하여야 옳은 것이다.⁷⁹⁾

家人卦의 九三에 대한 楊萬里의 해설처럼 실질상, 지나치게 즐거운 것이 지나치게 엄한 것만 못하다는 것은 부득한 선택인 것으로 집안을 바로 잡는 최상의 방법은 엄하나 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동시에 화락하나 문란에 탐닉하지 않는 것이다. 朱子 역시 이 문제에 대하여 제자와 토론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기 예문에서처럼 양만리의 말과 같다. 가정 내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는 동적인 것으로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생존에 일차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일종의 현실적이고 상대적인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和勝이 ‘嚴勝’보다 못하다는 사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엄함과 화락함이라는 이 상호 모순된 실천태도를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것을 주역은 강조하고 있다.

사회전체와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이 윤리사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다. 가정윤리를 국가에 원용하기 위하여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차별애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순화해나가느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왕이 한 가정을 갖게 된다. 근심할 것이 없다. 길할 것이다. 象에 말하기를 ‘왕이 한 가정을 갖게 되다.’는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다.”⁸⁰⁾라는 것은 상호간의 사랑으로 차별애적인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 실천에 대하여 楊萬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집안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다스리는 데 있으며,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덕을 베푸는 데 있다.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법에 있으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마음에 있다.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쉬우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우나,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쉬우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덕을 베풀고 화목하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九五는 乾德의 강함을 밝히

79) 『朱子語類』卷72, “或問: 伊川易傳云, 正家之道在於正倫理篤恩義. 今欲正倫理, 則有傷恩義, 欲篤恩義, 又有乖於倫理, 如何? 曰: 須是於正倫理處篤恩義, 篤恩義而不失倫理, 方可”

80) 『家人卦·九五』, “王假有家, 勿恤, 吉. 象曰: 王假有家, 交相愛”

는 것으로 巽卦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음으로 천하국가의 지존의 위치에 이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감복시키니 부드러움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세상에 미치지 사람들이 서로 애정을 나누게 되어, 세상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아도 되기에 길하다.⁸¹⁾

2. 사회윤리: 公正

사회윤리는 가정윤리가 넓혀져 전개된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가정윤리와 공통된 가치덕목들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윤리의 가치덕목들과 상이한 것은 가정윤리의 가족구성원간의 혈연관계가 아닌, 개인과 사회집단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주역』은 가정에서 사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大公中正’으로 편협한 개인의 사리와 사욕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회로의 발전과정을 “사람을 문밖에서 만나니 허물이 없다. 象에 말하기를 문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니 또 누구를 허물하라”⁸²⁾라고 한 同人卦(☲☵)에서 엿볼 수 있다.

사람사이의 인정이 깊거나 얕음이나 친소에 의하여 서로 간에 허물이 생기는 법이지만 이러한 인정의 후박이나 친소가 없다면 당연히 편벽됨이 없게 됨으로 어느 누구도 이를 허물치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가족구성원과 문밖의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불편부당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同人卦의 六二是 初九와 상반되게 찬양의 어조가 아닌 “종족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인색한 일이다. 상에 말하기를, 종족 속에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인색한 방법이다”⁸³⁾라 하여 힐책과 비난의 어조를 띤다. 동족사이에만 만나고 서로 화합하고 사회와는 화합하지 않는 것은 편협하고 폐쇄적인 것으로 결국 사회의 단결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나아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同人卦의 「象傳」에서 “문명하고도 건설하고, 중정하고도 서로 응한다 이것이 군자의

81) 『誠齋易傳』, “正家在政, 睦家在德. 正人在法, 感人在心. 使我正人易, 使我愛人難. 使我愛人易, 使人愛我難. 使人愛我易, 使人人交相愛難. 非以德睦之, 以心感之, 安能使之交相愛乎? 九五以乾德之剛明, 居巽位之中正, 爲天下國歌之至尊, 而愛心感人, 巽而入之, 此所以感假其家人, 以及天下, 莫不人人交相愛, 勿憂天下之不愛而自吉也”

82) 「同人卦·初九」, “同人于門, 無咎. 象曰: 出門同人, 又誰咎也”

83) 「同人卦·六二」, “同人于宗, 吝. 象曰: 同人于宗, 吝道也.”

바른 바이다. 오직 군자라야만 능히 천하의 뜻에 통하는 것이다⁸⁴⁾라고 재삼 ‘大中公中正’을 강조하고 있다. 大中公中正의 방법으로 程頤는 克己復禮를 통한 大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천하의 뜻은 수없이 많으나, 그 이치는 하나이다. 군자는 이치에 밝음으로 능히 천하의 뜻에 통한다. 성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을 보듯이 하는 것은 이치에 통하였기일 따름이다. 문명은 곧 이치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능히 大同의 뜻을 밝힐 수 있다. 강건한 것은 곧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大同의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능히 바르게 하늘의 움직임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⁸⁵⁾

3. 정치윤리: 中正

정치윤리도 역시 기타 윤리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늘의 움직임에 합당히 부합하여야만 한다. 합당하다는 것 즉 中正은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양의 운행이 지나치게 강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음의 운행이 지나치게 유순해서도 안 되고 中道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바른 것은 邪함이 없는 것이며 음양이 각자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정직하고 음과 양이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中道の 규범은 음양이 상호 교류하고자 함에 부응하는 것이고, 正의 규범은 사회구성원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부합되는 것이다. 中과 正이라는 두 규범은 음양의 분화와 결합이라는 가정과 사회성립구조상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中과 正이라는 정치규범도 그 바탕은 가정과 사회이고, 더 그 연원을 소급하면 음양의 분화와 결합이라는 변증법적인 논리를 따른다.

음양의 운행과 행위가 중도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상호간의 교감내지 구성원의 진정한 참여 없이 사회가 구성되게 되고, 음과 양의 행위와 운행이 바르지 않다면 사회구성요소간의 귀천이 불분명하게 되어 사회질서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 따라

84) 「同人卦·象傳」, “...文明以健, 中正而應, 君子正也。唯君子, 爲能通天下之志...”

85) 「同人卦·象傳」, “天下之志萬殊, 理則一也。君子明理, 故能通天下之志。聖人視億兆之心猶一心者, 通於理而已。文明則能燭理, 故能明大同之義。剛健則能克己, 故能盡大同之道。然後能中正合乎乾行也。”

서 『주역』은 음양쌍방의 운행과 행위의 中正여부가 직접적으로 정치사회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한다. 가정윤리와 사회윤리 및 정치윤리의 구체적인 행위규범의 서로 다르지만, 음양의 분화와 결합상의 中正의 도리는 상호 공통적이다. 이는 중정의 도가 바로 하늘의 운행의 법칙 즉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周易』은 인류사회의 윤리규범이 모두 天道를 본받아서 나온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天道는 음양의 운행규율로 인간에게 ‘中正之道’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음양의 부단한 생성과 변화라는 총체적 특징인 元亨利貞이라는 四德을 인류에게 계시하고 있다.

元은 만물의 시초인 것으로 인류에게 仁의 미덕을 계시하고, 亨은 만물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류에게 禮의 미덕을 계시하는 한편, 利는 만물이 쫓아 따르는 것으로 인류에게 義의 미덕을 계시하고, 貞은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류에게 智의 미덕을 계시하고 있다. 仁義禮智는 유가의 기본적인 윤리덕목으로 맹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仁의 단초이며,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義의 단초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禮의 단초이며,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智의 단초이다. 사람은 이 四端을 지니고 있는 데, 이는 四體인 元亨利貞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⁸⁶⁾고 人心속에 있는 四端을 가지고 이를 논증하였다.

VI. 결론

『周易』은 천도의 운행과 만물의 생성 및 사시의 추이와 변화 등의 차원에서 윤리덕목을 논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天道를 가지고 인간의 세상사를 설명하는 새로운 사교의 지평을 열게 하였다. 『周易』은 天道를 근거로 추론하여 人事를 밝히려 하였고 유가가 주장하고 있는 인문적 가치와 이상 등을 자연주의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논증함으로써 본체론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킨 원리로서 인간을 포함한 각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상호영향 즉 교감을 통하여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86) 『孟子·公孫丑上』,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고 보고 있고, 각 사물의 역할과 기능을 유비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음양의 대립과 통일, 變化와 交感, 生生, 類比的인 觀象과 取諸身 및 取諸物 등으로 설명되어지는 整體論的인 『周易』의 사유원리는 천인합일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율을 이어 나가는 것은 선하고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외재한 자연율인 천도를 자발적으로 이어 나가, 자기 주관적인 내재의 선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루어 나가는 것은 性이라면 이루지 못하거나, 안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로 응축시켜내지 못한 것임으로 사람은 주동적으로 도덕수양을 하여야만 한다. 『주역』의 이러한 사상은 천인합일 및 내외의 합일을 통하여 주체가 자각하는 자율적인 도덕률과 객관적인 외부의 준칙인 타율적인 도덕규범을 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역』의 도덕적 수양론은 맹자와 순자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周易』은 가정윤리의 가치덕목들을 가치와 덕목자체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 아닌 우주자연의 질서를 포함한 정체론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언급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변화와 추세를 살펴 새로운 실천규범을 창출하고 있다.

『周易』은 자율과 타율, 내재와 외재를 융합하여 독특한 하나의 사유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사람은 마땅히 하늘과 땅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주자연의 조화와 질서 등에 맞춰 인간자신의 규범과 행위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사람은 마땅히 自強不息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선한 본성을 실현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사물과 조화롭게 순리적으로 존재하는 즉 和順의 경지에 다다름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이는 각 개인과 사회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주역』 윤리사상의 특징인 동시에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周易』은 인류사회의 윤리규범이 모두 天道를 본받아서 나온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가정윤리와 사회윤리 및 정치윤리의 구체적인 행위규범의 서로 다르지만, 음양의 분화와 결합상의 中正의 도리는 상호 공통적이다 이는 중정의 도가 바로 하늘의 운행의 법칙 즉 자연의 법칙인 천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天道는 음양의 운행규율로 인간에게 ‘中正之道’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음양의 부단한 생성과 변화라는 총체적 특징인 元亨利貞이라는 四德을 인류에게 계시하고 있다.

『주역』은 도덕수양상에 있어서 본체론적인 차원의 超越과 內在라는 일반적인

개념과 비교될 수 있는 ‘自律’과 ‘他律’이 혼합된 형태를 띠는 특성을 지니는 한편, 窮理와 盡性이라는 두 차원의 공부를 통하여 內外陰陽의 道인 天道에 부합하여야만 命이라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지니고 있는 본체인 도덕수행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향외적인 窮理와 향내적인 盡性を 통하여 궁극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역윤리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大學』; 『孟子』; 班固, 『漢書·藝文志』; 『四庫全書總目提要』; 『荀子』; 『禮記』; 『朱子語類』; 『周易』; 『通書』; 『中庸』; 『淮南子』; 『誠齋易傳』; 『周易內傳』; 『周易外傳』; 『周易』; 『周易正義』.

金珍根, 「새로운 周易觀 定立을 위한 研究 전통 주역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易經」·「易傳」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주역학회(편), 『周易의 現代的 照明』, 서울: 범양사, 1992.

金忠烈, 「損·益卦의 論理와 敎訓」, 『周易研究』 제2집, 한국주역학회, 1997, 19~32쪽

金亨起, 「『周易』의 共存倫理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 2000.

서원화(저)/김제란(역), 「중국고대의 천인합일사상과 현대적 의의」, 한국동양철학회(역음), 『기술정보화시대의 인간문제』, 서울: 현암사, 1994.

成中英, 「『易』에 있어서 象·數·義·理의 一體同源論」, 『周易研究』 제3집, 한국주역학회, 1999, 89~117쪽.

宋寅昌, 「『周易』에 있어서 感通의 問題」, 『周易研究』 제3집, 한국주역학회, 1999, 161~188쪽.

宋寅昌, 「『周易』에 있어서의 ‘盡性’의 問題」, 『周易研究』 제5집, 한국주역학회, 2000, 311~338쪽.

宋桓龍, 「易論의 思惟體系와 삶의 세계」, 『周易研究』 제2집, 한국주역학회, 1997, 3~17쪽.

李鉉中, 「『周易』六十四卦의 序卦原理에 關한 研究」, 『周易研究』 제2집, 한국주역학회, 1997, 171~206쪽.

張勝求, 「伊川『易傳』의 倫理思想」, 『周易研究』 제5집, 한국주역학회, 2000, 73~97쪽.

朱伯崑, 「周易의 特質과 그 現代的 價値」, 『周易研究』 제3집, 한국주역학회, 1999, 23~47쪽.

천병돈, 「朱子學은 象數學인가?」, 『周易研究』 제5집, 한국주역학회, 2000, 20~21쪽.

郭廣銀, 『倫理學原理』,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5.

郭沫若, 「周易時代의 社會生活」, 『中國古代社會研究』, 人民出版社, 1954.

劉長林, 『中國系統思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李鏡池, 『周易探源』, 北京: 中華書局, 1982.

李廉, 『周易的思維與羅輯』, 中國 安徽人民出版社, 1994.

錢玄同, 『讀漢石經周易』殘字而論及今文易的篇數問題, 顧頡剛編 『古史辨』3冊上, 樸社, 1933.

국문 요약

『周易』은 천도의 운행과 만물의 생성 및 사시의 추이와 변화 등의 차원에 서 윤리덕목을 논증하고 있어 天道를 가지고 인간의 세상사를 설명하는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게 하였다. 그 중 「易傳」은 유가와 도가 등의 사상이 원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천인관계를 소통시켜, 天道의 陰陽이 곧 人道의 仁義이며 人道의 仁義가 곧 天道의 陰陽이라는 ‘性命之理’의 천인합일사상을 심화시켜, 인과 의라는 윤리상의 덕목을 우주론적인 본체론으로 심화시켰다. 따라서 仁義는 그 철학적인 범주를 넓혀나가게 되었다.

『周易』은 가정윤리의 가치덕목들을 가치와 덕목자체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 아닌 우주자연의 질서를 포함한 整體論的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변화와 추세를 살펴 새로운 실천규범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계각층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도덕적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 투고일 : 2006. 11. 6.

● 심사완료일 : 2006. 11. 27.

● 주제어(keyword) : 주역(The Book of Changes), 윤리 (Morals), 공정 (Fair), 화순 (Harmony), 천인합일(Unity of Heaven and Man), 음양 (Yin and Yang), 정체론(Holism), 생생변화 (Ever-changing)